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치학석사학위논문

국민투표에서의
투표 선택과 정당 평가:
영국의 Brexit 사례를 중심으로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정 지 혜

국민투표에서의
투표 선택과 정당 평가:
영국의 Brexit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강 원 택

이 논문을 정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정 지 혜

정지혜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7월

위 원 장	<u>박 원 호 (인)</u>
부 위 원 장	<u>강 원 택 (인)</u>
위 원	<u>한 정 훈 (인)</u>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영국에서 실시된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의 유권자 투표 행태와 투표 결과 이후 유권자의 지지 정당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와 영국 및 유럽연합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이 브렉시트 국민투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둘째, 브렉시트 투표 과정과 결과가 지지 정당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국민투표에서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브렉시트 찬성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영국 및 유럽연합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평가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은 영국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그리고 유럽연합의 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브렉시트에 찬성했다. 이는 영국이 아닌, 유럽연합 민주주의의 결핍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유럽연합 탈퇴를 선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지지 정당에 대한 정당일체감과 당수 선호도는 보수당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그 방향성 또한 음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즉,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은 지지 정당의 당론과 당수의 의견을 정보의 지름길로 활용하지 않았다.

나아가, 투표 이후 지지 정당 및 투표 선택과 무관하게 유권자들의 지지 정당 평가 – 정당일체감, 당수 호감도, 투표 의향도 –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지지 정당 통합도 및 정당 효용성 등을 포함하는 국내 정당 체계에 대한 평가 변수들이었다. 유권자들은 영국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이 효용성을 보유한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지지 정당이 통일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할수록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다. 이는 유권자들은 지지 정당이 영국 민주주의 체제에서 유용한 역할을 수행하고,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브렉시트 이슈에 대해 통일된 당론을 제시하기를 기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으로 보면, 만약 정당이 효용성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자신의 지지 정당이 통일된 당론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 지지 정당에 대한 정당일체감과 당수 호감도, 투표 의향도가 하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과정과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세계화, 양극화 등으로 인해 기존 정당이 대응하기 어려운 이슈가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기반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둘째, 투표 행태 분석에서 영국 및 유럽연합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변수들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셋째, 향후 정당 정치에서 기존의 ‘정당 → 유권자’라는 일방향적 관계가 아닌 정당과 유권자가 쌍방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확립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 정당이 대응하지 못하는 이슈가 많아졌을 경우, 유권자의 투표 행태와 투표 결과 이후 정당 정치에 대한 평가 등 정당 체계에 대한 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요어: 브렉시트, 유럽연합, 국민투표, 투표 행태, 민주주의 평가, 지지 정당 평가, 영국 정당 정치

학 번: 2014-22278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기존 문헌 검토	9
제 3 장 연구 분석틀	15
1. 분석틀	15
2. 연구 질문	20
3. 연구 대상	22
4. 주요 변수 설정	24
제 4 장 데이터 분석	27
1. 브렉시트 투표에 대한 분석	27
2. 국민투표 결과가 지지 정당 평가에 미치는 영향	30
제 5 장 종합 논의	37
제 6 장 결론 및 연구의 함의	47
[부록] 응답자 분포	53
참고 문헌	55
Abstract	62

표 목차

[표 1] 주요 정당별 브렉시트 찬반 투표 비중.....	7
[표 2] 연구 질문별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정리	26
[표 3]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투표 선택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28,38	
[표 4] 유권자군별 정당 정당일체감 강도에 대한 회귀분석	31,41
[표 5] 유권자군별 정당 당수 호감도에 대한 회귀분석	32,43
[표 6] 유권자군별 지지 정당 투표 의향도에 대한 회귀분석	34,45
[표 7] 유권자군별 지지 정당 정당일체감•정당 당수 선호도•지지 정당 투표 의향도에 대한 회귀분석	36
[표 8] 연령대별 응답자 비중	53
[표 9] 교육 수준별 응답자 비중	54
[표 10] 직업자군별 응답자 비중	54

그림 목차

[그림 1] 브렉시트 찬반 지지율 변화 추이	3
[그림 2]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8
[그림 3] 기존 연구의 연구 분석틀	16
[그림 4] 본 연구의 연구 분석틀	17
[그림 5] 본 연구의 유권자 그룹 분류 도식화	23
[그림 6] 영국의 주요 정당별 의석 수 비중 변화	49

제 1 장 서론

2016년 6월 실시된 브렉시트¹ 국민투표(Brexit Referendum)는 의회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온 영국에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슈에 대해 영국의 전통적 양대 정당인 보수당과 노동당은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보였다. 보수당은 당론을 수립하지 못했고, 브렉시트 이슈에 대한 당원들의 개별 입장을 존중하기로 하였다. 노동당의 경우에는 ‘브렉시트 반대’라는 당론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수였던 제레미 코빈(Jeremy Corbyn)이 캠페인 참여에 미온적 입장을 보이다가 투표일의 열흘 전인 6월 13일이 되어서야 브렉시트 반대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결국, 2016년 6월 23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탈퇴’ 찬성이 51.9%, 반대가 48.1%로, 3.8%의 차이로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되었다.

유럽연합 탈퇴라는 국민투표 결과가 나오자, ‘유럽연합 잔류’를 주장했던 양대 정당의 당수는 투표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요구 받았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를 공약하고, 2015년 5월 총선 이후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를 이끌며 ‘유럽연합 잔류’를 주장했던 보수당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은 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노동당 당수인 코빈 또한 브렉시트 결정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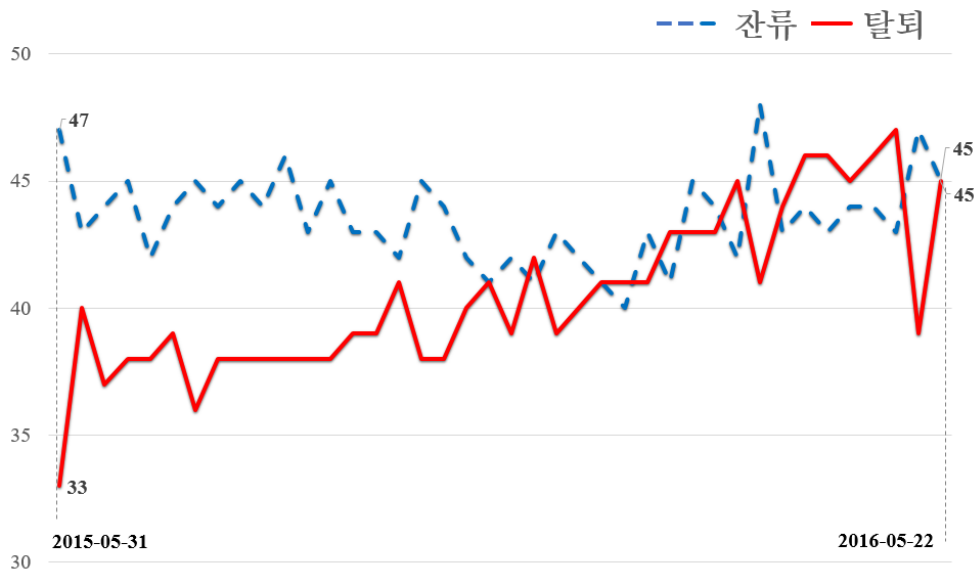
¹ 해당 용어는 영국을 의미하는 Britain과 탈퇴를 의미하는 Exit가 통합된 합성어로, EU로부터 영국이 탈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임

예비내각(Shadow Cabinet) 31명 중 과반이 사임함에 따라 노동당 내에서 사퇴에 대한 압박을 받았다.

그러나, 본 논문은 브렉시트라는 결과보다 국민투표에 참여한 영국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 요인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또한, 투표 결과가 나타난 이후, 투표 과정에서의 지지 정당의 역할과 정당 체제에 대한 평가가 지지 정당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투표 행태가 흥미로운 이유는 주요 정당들이 해당 이슈에 대해 일관성 있는 태도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본 논문의 관심은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첫째, 유권자들의 선택은 지지 정당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에게 정당이 일치된 입장을 제시하지 못했을 때에도 과연 지지 정당이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브렉시트 이슈가 대외적인 이슈임과 동시에 대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였던 만큼, 과연 영국 및 유럽연합의 정치 체제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이다.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 여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결정은 단순히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영국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정치 체제를 영국 중심으로 운영할지, 아니면 유럽연합이라는 글로벌 정치 체계와 융합적인 체제로 운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유권자들이 실제 영국의 민주주의 체제와 유럽연합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가 국민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국민투표의 결과가 도출된 이후 유권자의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주요 정당의 지도부가 사임을 하거나 사퇴 압력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지지 정당이 어떻게 이 이슈를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 평가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과연 유권자들이 그들의 지지 정당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무엇이며, 그 역할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².

[그림 1] 브렉시트 찬반 지지율 변화 추이(단위:%)



자료: 여론조사 기관 ICM이 2015년 5월 31일부터 2016년 6월 13일까지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대해 수행한 여론조사 참고³

² 이 글에서 분석을 위해 활용할 데이터는 2015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전후의 패널 데이터 자료이다.

³ “UK’s EU Referendum Brexit Poll Tracker”, Financial Times, 2016.06.23 (<https://ig.ft.com/sites/brexit-polling>)

논의 배경: 유럽연합 관련 이슈에 대한 주요 정당의 비일관적 태도

본격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왜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이 비일관적인 입장을 보였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영국의 양대 정당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사안에 대해 일관된 당론을 제시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의회주권론의 국가인 영국에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 의회는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을 모두 보유함에 따라 정치기관 중 최고의 권한을 가지며, 이를 의회주권의 원칙이라 한다(강원택 외, 2004). 의회 주권의 원칙을 갖는 이러한 국가에서 의회에서의 결정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실시했다는 것 자체가 영국의 정당들이 브렉시트 이슈를 효과적으로 대표하고 해결해내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유럽연합 이슈는 과거에도 정치적으로 어려운 이슈였다. 영국은 1973년 보수당 정부 하에서 현재 유럽연합의 전신인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동당은 1974년 총선에서 EEC 가입에 대한 찬반을 국민들에게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으며, 집권 이후인 1975년 6월 5일 영국 정당 역사상 최초의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당시 보수당은 ‘잔류’의 입장을 지지했다. 국민투표 결과, 투표자의 67%의 찬성으로, 영국은 EEC에 잔류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8년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보수당 총리가 벨기에 브뤼헤(Bruges)에서 “소련연방과 같이 모든 것을 중앙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국가들이 성공을 위해서는 권력을 중앙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분배해야 된다는 점을 배우고 있는 현 시점에, 이와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커뮤니티 내에 존재한다. 우리는 영국의 국경(the frontiers of the state in Britain)을 넓히는데 성공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브뤼셀(Brussels)을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유럽이 초국가(superstate)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⁴”는 연설을 하면서, 보수당 내 ‘유럽연합 회의주의’가 발생하게 되었다⁵. 이후, 보수당은 반-EU의 윌리엄 헤이그(William Hague)가 당수로 선출되었고, 그 이후에도 2001년부터 더욱 강경한 반-EU 태도를 갖는 던컨 스미스(Duncan Smith)가 보수당을 이끌며 보수당 내의 반-EU 성향은 강화되었다. 유럽연합 내의 통합이 심화되면서 보수당 내에서 유럽회의론자들은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005년 캐머런은 보수당 당수가 된 이후 보수당 내에서 유럽연합에 대한 논쟁이 이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당내 반발은 줄어들지 않았다. 보수당 내 유럽회의론자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에서의 잔류 또는 탈퇴를 결정하길 원했고, 결국 2013년에 캐머런은 2017년 말 이전에 브렉시트에 대한 재논의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과거에도 보수당과 노동당은 유럽연합 이슈에 대해 일관되고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못했다. 1975년 국민투표를 추진한 정당은 노동당이었던 반면, 2016년 국민투표를 추진한 정당은 보수당이였다.

⁴ “It is ironic that just when those countries such as the Soviet Union, which have tried to run everything from the centre, are learning that success depends on dispersing power and decisions away from the centre, there are some in the community who seem to want to move in the opposite direction. We have not successfully rolled back the frontiers of the state in Britain only to see them reimposed at a European level with a European superstate exercising a new dominance from Brussels.”

⁵ “September 21 1988: Thatcher sets face against united Europe”, The Guardian, 1988.09.21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1988/sep/21/emu.theeuro>)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한정해서 볼 때도 보수당과 노동당은 브렉시트에 대해 당내에서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특히, 보수당의 경우 당수인 캐머런이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의견이 나뉘어 하나의 당론을 내세우지 못했다. 보수당 내각의 장관 6명은 캐머런 총리와 입장을 달리하여 탈퇴파에 합류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서도 총 330명의 의원들 중 약 56%에 이르는 186명은 ‘유럽연합 잔류’에 투표한 반면, 약 43%에 이르는 141명은 ‘유럽연합 탈퇴’에 투표했다⁶. 노동당의 경우에는 당론은 상대적으로 명확했던 반면 당수였던 코빈의 태도는 애매했다. 코빈은 1975년 국민투표에서 ‘EEC 탈퇴’에 투표한 바 있다. 그는 영국이 유럽연합과 심화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있어서도 그는 ‘유럽연합 잔류’ 캠페인 참여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노동당 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결국, 코빈은 국민투표 열흘 전인 6월 13일 경이 되어서야 브렉시트 반대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와 같이 주요 정당들은 브렉시트라는 이슈에 대해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도 유권자들에게 일관된 당론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주요 정당들이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을 위한 정보의 지름길을 제시하는 정치적 방향성 제공자(political cue)로서의 역할 수행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표 1]에서 보듯이, 같은 정당 지지자 중에서도 브렉시트에 대한 입장은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보수당 정당일체감 보유 유권자 중 브렉시트 찬성자는 35.2%, 노동당

⁶ 단, 3명은 자신의 투표를 밝히지 않았다.

정당일체감 보유 유권자 중 찬성자는 66.9%로 나타났다⁷. 해당 결과는 주요 정당들이 지지자들에게 브렉시트 투표를 위한 명확한 태도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만약 유권자들이 브렉시트 이슈에 대해 자신의 지지 정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을 정보의 지름길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동일한 지지 정당의 유권자들은 투표 선택에 있어서 높은 일관성을 보여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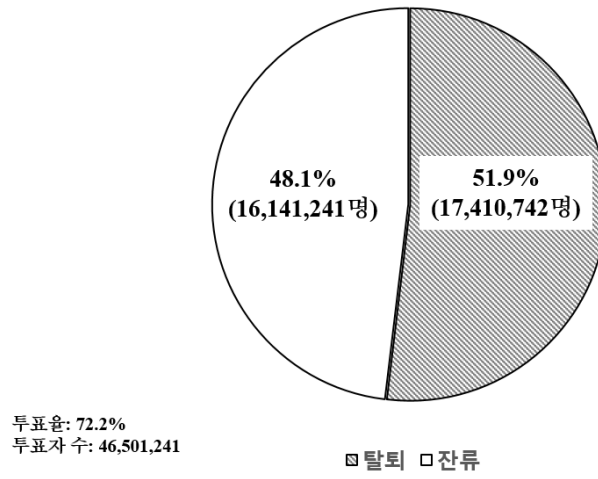
[표 1] 주요 정당별 브렉시트 찬반 투표 비중

	찬류	탈퇴
보수당	35.2%	64.8%
노동당	66.9%	33.1%
자유민주당	76.6%	23.4%
스코틀랜드 국민당	68.3%	31.7%
영국독립당	1.4%	98.6%

이와 같은 주요 정당들 내의 불일치된 의견 제시는 2016년 6월 23일 실시된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결과를 ‘유럽연합 탈퇴’로 결정하는 데에 일조했다. 브렉시트에 대한 찬성(유럽연합 탈퇴)은 51.9%, 반대(유럽연합 잔류)는 48.1%였다. 양 측의 득표율 차는 3.8%에 불과했다(그림 2 참조). 결국, 국민투표는 브렉시트라는 예상 밖의 결과로 이어졌다. 당시 투표율은 72.2%로 2015년 총선 당시 투표율이었던 66.4%를 크게 웃도는 비율이었다.

⁷ 이와는 대립되게, 영국독립당 정당일체감 보유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브렉시트 찬성자 비중이 98.6%로 나타났다.

[그림 2]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제 2 장 기존 문헌 검토

기존 선거 연구는 정당 및 정권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논의가 중심이었다. 즉, 기존 연구에서의 핵심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주는’ 정당과 ‘정당과 정권의 성과(performance)에 따라 반응하는’ 유권자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 및 회고 투표(Retrospective Vote) 등을 들 수 있다.

정당일체감은 장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특정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안정적인 심리적 애착감(attachment)을 의미한다(Campbell et al., 1954; 1960). 유권자들은 모든 정당 및 후보자들의 정책적 입장에 대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투표를 위한 정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당이나 정치이념을 활용한다(Downs, 1957). 정당은 복잡한 정보를 단순화시키고, 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정당일체감은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즉, 유권자들은 정치적 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선별기제(perceptual screen)로 정당일체감을 활용한다. 또한, 정당일체감은 어린 시절 성립되고, 어른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존재하며, 변화하지 않는 속성(unmoved manner)을 지닌다(Campbell et al., 1960). 이에 따라, 정당은 대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체로 활동하게 되었고, 유권자는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를 기반으로 정치적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정당일체감이 유권자로 하여금 그

정당에 대해 투표하도록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Campbell et al., 1960; Zaller 1992; Dalton /7 Weldon, 2007; Lewis-Beck et al., 2008).

그러나, 브렉시트에 대한 투표 행태 분석에 있어서는 정당일체감만을 중점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 브렉시트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수당은 해당 이슈를 두고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결정하였고, 노동당의 경우에는 브렉시트 반대라는 당론은 수립되었으나 노동당 당수인 코빈이 캠페인 참여에 다소 미온적이었다. 정당은 지지자들에게 명확한 정치적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다. 앞의 [표 1]에서 보았듯이, 한 정당 지지자들도 찬성과 반대로 입장이 뚜렷이 갈렸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국민투표’였다는 사실이다. 국민투표는 그 특성상 일반적인 총선과 달리 선거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주요 정당과 그들의 입장에 기반한 유권자들의 선택이 발생하기 어렵다. 즉, 정당들의 선거 승리를 위한 방향성 제시와 정당일체감에 기반한 유권자 투표 실시 등 선거에서의 전통적인 요소들에 의해 그 결과가 결정되지 않으며, 질문의 찬성과 반대측의 자원 균형, 투표율 등의 요인들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Papadopoulos, 2001). 이에 따라 총선에서와는 상당히 다른 투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Butler & Ranney, 1994). 주요 정당들이 권력을 두고 다투는 총선과는 달리, 국민투표에서는 특정 정당이 선거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선거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일체감 외에 다양한 변수들이 유권자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양대 정당이 명확한 당론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정당일체감을 중심으로 한 설명에 어려움이 존재함은 물론이고, 이와 더불어 국민투표라는 투표 형식 그 자체가 정당일체감을 중심으로 한 설명을 어렵게 한다. 하지만, 영국 정치 체제가 내각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라고 해도 그 정치적 결과에 의해 정당이 정치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즉, 브렉시트 이슈는 국민투표라는 점에서 정당일체감만을 기준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나, 영국의 정치 체제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정당일체감을 아예 배제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브렉시트 논의를 위해서는 일반 총선에서 만큼의 영향이나 강도는 아니더라도, 정당일체감의 영향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고 투표(V.O. Key, Jr., 1966; Fiorina, 1981)의 측면에서도 브렉시트를 설명하기 어렵다. 회고 투표는 유권자들이 정당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의 총합(running tally)(Fiorina, 1981; Achen 1992)을 투표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회고 투표는 정당일체감에 대한 수정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등장했으며, 피오리나(Fiorina)를 중심으로 한 수정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투표에 임한다고 주장한다. 회고 투표는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사후적 평가와, 전망적 투표(prospective voting)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우선, 유권자들은 대체로 사후적으로 여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며, 이는 곧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심판(referendum)의 의미를 지닌다(Key, 1966). 피오리나는 회고 투표의 사후적 평가의 특징을 확장하여, 각 후보 및 정당에 대한 회고적 평가가 미래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는 회고적 투표 이론을 제시했다(Fiorina, 1981). 많은 연구들은 회고적 투표의 핵심인

경제적 상황에 대한 평가가 여당 소속 후보의 득표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냈다(Tufte 1978; Hibbs 1987; Lewis-Beck 1988; Erikson 1989).

하지만, 브렉시트는 회고적 평가를 통해 설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브렉시트는 특정 정권의 정치 및 경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두고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찬반의 논쟁은 이미 구체적으로 결과가 도출된 상황에서의 논쟁이 아니라, 유럽연합 잔류의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유럽연합 탈퇴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미래’의 가능성을 두고 진행되었다. 회고적이기보다 전망적인 특성이 강했던 것이다.

한편, 기존의 브렉시트 연구의 접근법은 주로 문화적인 측면에 주목하거나 투표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시한 연구들은 대체로 학력 수준이 낮고 나이가 많거나(Agust & Zoega, 2016), 또는 학력 수준이 낮고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투표자들이 브렉시트를 지지(Hobolt, 2016)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문화적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한 연구들에 따르면, 경제적 불평등 및 문화적 반발 등을 고려했을 때, 정체성, 반엘리트주의 등 문화적 반발의 측면이 브렉시트 투표 여부에 더 큰 영향력을 보유했다고 주장한다(Inglehart & Norris, 2016). 즉, 브렉시트에 대한 투표 결정은 반글로벌주의(anti-globalism), 반이민자주의(anti-immigration), 반기득권층(anti-establishment) 등의 문화적 요인들에서 기인된다고 해당 연구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누가, 왜’라는 인과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 아닌,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주목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도 투표자의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힐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한편, 브렉시트 이슈는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이슈라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잔류 또는 탈퇴를 하는가에 대한 여부에는 국내 정치적 상황뿐만 아니라, 유럽적 요인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예컨대, 최근 유럽연합에 대해 유럽 내에서는 민주주의의 결핍(Democratic Deficit)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이는 유럽통합을 심화 시키는데 필수적인 초국가주의의 확산이 유럽연합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회원국 수준에서도 대의민주주의적인 질서를 왜곡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배병인, 2011). 즉, 유럽연합의 ‘민주주의 결핍’ 문제는 유럽통합을 통해 유럽연합이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이에 따라 회원국 수준에서의 민주주의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유럽연합의 민주주의의 결핍은 세 가지 측면에서 지적되었다. 첫째, 유럽인들을 유럽인으로 통칭할 수 있는 명확한 의미의 유럽 시민(European demos)이 없다(김남국, 2004). 둘째, 유럽연합의 정책결정 기구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시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기에 대표성이 부족하다(설한, 2010). 셋째, 유럽연합의 초국가기구들이 대의민주주의 질서로부터 자유로운 ‘비대의적 기구(non-majoritarian institutions)’의 성격을 갖는다(배병인, 2011; Thatcher & Sweet, 2002). 이런 점에서 본다면, 유럽연합 탈퇴라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의 기저에는 유럽연합이 영국의 입헌 민주주의 기반을 약화시켰기 때문(Buller, 2016)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즉, 영국민들은 유럽연합의 민주성 결핍이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하여 유럽연합에서의 탈퇴를 선택했을 수 있다. 이처럼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투표 행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영국 의회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주요 정당들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영국의 민주주의 및 유럽연합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결과가 다시 유권자들의 지지 정당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브렉시트에 반대한 보수당 지지자는 선거 결과를 두고 보수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총선에서 패배한 정당의 지지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Anderson & Guillory 1997). 마찬가지로, 브렉시트 투표 과정과 결과가 유권자들의 지지 정당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정당은 불명확한 입장을 보여줬다는 점에 주목하여, 정당에 대한 평가와 영국 및 유럽연합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평가가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후, 국민투표의 과정과 결과가 다시 유권자의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제 3 장 연구 분석틀

1. 분석틀

기존 선거 연구에 관련된 이론의 연구 분석틀은 대체로 (1) 이슈 발생; (2) 정당의 이슈에 대한 입장 제시; (3) 유권자 선택 등의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어지는 관점을 취해 왔다(그림 3 참조). 이슈 발생의 단계에서는 전통적으로 주요 정당 간의 명확한 대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슈들이 제시된다. 그 예로, ‘성장 대 복지’, 인종 간 대립, 낙태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이슈들은 오랜 시간동안 정치적으로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각 정당이 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지지자들 또한 관련 이슈들에 대해 선호를 보유한다. 즉, ‘정당의 입장 제시’가 명확한 이슈들이다. 예컨대, 보수당이 상대적으로 시장 경쟁과 효율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면, 노동당은 국가 개입과 형평성을 보다 중시해 왔다. 정당들 간 이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존재할 때, 정당은 유권자들에게 명확한 정보의 지름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정당일체감을 기반으로, 이슈에 대해 자신의 지지 정당이 제시한 의견에 따라 선택을 한다(Campbell et al., 1960).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유권자의 선택은 정책 투표 시 그들은 자신의 정책적 판단의 합리화를 위해 설득(persuasion) 또는 투사(projection)의 과정을 거친다(Brody & Page, 1972). 이는 유권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적 입장에 설득(persuasion)이 되거나, 자신의

정당일체감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호를 투표에 투사(projection)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림 3]과 같은 기존 연구의 분석틀을 통해서는 브렉시트 사례를 분석하기 어렵다. 이는 앞 장에서 지적한 대로 주요 정당들이 명확한 이슈 관련 정치적 입장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과 더불어, 브렉시트라는 이슈 자체가 갖는 기존 이슈들과의 차별성 때문이다. 즉, 브렉시트는 한 가지의 명확한 대립각만을 보유한 이슈가 아니다. 예를 들면, 브렉시트는 이민자, 국제 통상, 국제법, 국내 고용, 국가의 주권, 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이슈이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 찬반측은 유권자들에게 주장을 제시함에 있어 각각 강조했던 점이 상이했으며, 동일 정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서로 달랐다. 예컨대, 브렉시트 찬성 의견을 제시한 ‘유럽연합 탈퇴측’이 집중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은 이민자, 국내 고용, 국내 주권 등이었다. 그들은 이민자 유입에 따라 국내 고용 및 안보 환경이 악화되었으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영국 의회의 주권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브렉시트 반대 의견을 제시한 ‘유럽연합 잔류측’은 주로 글로벌 사회 내 정치, 경제 및 안보 차원의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만약, 브렉시트가 이뤄진다면, 관세 장벽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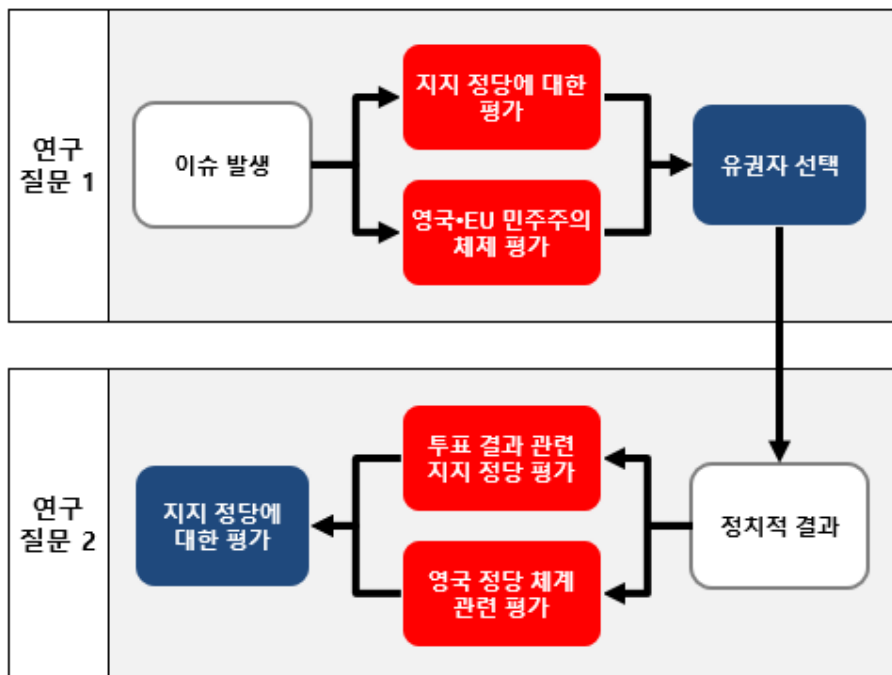
[그림 3] 기존 연구의 연구 분석틀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향후 영국 내 경제 상황을 악화시켜 국내 고용 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렉시트 반대파들은 국내 주권의 문제에 있어서도 글로벌 사회 내 기타 국가들과 더욱 친밀한 국제 관계를 유지할 때만이 국제적 차원의 안보 및 경제 문제에 있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찬반측의 간략한 논리를 보면, 브렉시트라는 이슈는 그 속에 다양한 문제의 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어려운 이슈(hard issue)(Carmines & Stimson, 1980)의 특성을 갖는다. 그만큼 기존 정당이 명확히 대응하기 어려운 이슈였다.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 분석틀을 보완하고 본 연구의 문제 의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림 4]와 같은

[그림 4] 본 연구의 연구 분석틀



분석틀을 제시한다. 해당 분석틀과 기존 분석틀의 차이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들에서 이슈 발생과 유권자 선택 사이에서 의사결정에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수행했던 ‘정당’의 주도적인 역할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대신 그 자리에는 유권자의 지지 정당 및 영국과 유럽연합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평가가 자리를 잡았다. 둘째, 이전 연구들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정치적 결과와 그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다시 유권자들의 지지 정당에 대한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려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틀을 브렉시트 사례에 적용하면, 우선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실시와 같은 이슈가 발생한다. 이후 해당 이슈에 대해 유권자의 기존 지지 정당이 이슈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해주지 못함에 따라, 유권자는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와 영국 및 유럽연합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여 투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유권자 선택 이후, 이슈에 대한 정치적 결과가 발생하고, 이 결과는 다시 유권자들의 정당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브렉시트 이슈에 대해 자신의 지지 정당의 선택과 자신의 투표 선택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 ‘유럽연합 탈퇴’라는 동일한 정치적 결과에 대해 상이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지지 정당이 서로 다르거나 혹은 같은 입장을 취했을 때,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지지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국민투표의 과정과 정치적 결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분석틀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투표 선택에 있어 유권자들의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 영국 및

유럽연합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유럽연합 탈퇴’라는 정치적 결과가 발생한 후에 유권자들의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이전 연구들의 분석틀과 달리 정당이 명확한 정치적 입장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당의 역할이 분석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그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전 브렉시트 투표 행태 관련 연구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영국 및 유럽연합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평가를 고려했다는 점과, 투표 결과 이후에 유권자의 정당 정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본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2. 연구 질문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대다수 이슈들의 경우에는 주요 정당들이 상이한 정치적 입장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자신의 정당일체감과 관련이 있는 지지 정당별로 제시된 정책 입장에 따라 투표를 실시한다(Brody & Page, 1972; Carmines & Stimson, 1980). 하지만, 브렉시트 국민투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글로벌화 및 사회 다각화에 따라 사회적 이슈가 복잡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정당이 대응하기 어려운 이슈들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다양한 국가들 내에서 대두되는 환경, 문화, 그리고 브렉시트 등의 이슈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연령, 경제적 배경, 문화적 가치관 등 정당이 아닌 다양한 개인적 차원의 변수들에 기반한 투표 선택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그에 반해 브렉시트라는 이슈와 관련하여 영국과 유럽연합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평가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선 과연 유권자들의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와 영국 및 유럽연합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평가가 그들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고자 한다. 즉, 이 연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브렉시트 투표에서의 정치적 요인이다.

또한, 본 연구는 국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그들의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볼 것이다. 유권자들은 국민투표 과정과 결과를 보고, 지지 정당이 보여준 태도와 영국 정당 체제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즉,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국민투표 과정에서 과연 지지 정당과 영국 민주주의 체제가 만족스러운 역할을 해주었는지 여부에 따라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브렉시트라는 사례는 안정적인 양당체제가 유지되어 온 영국에서 정당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 투표 결과에 따라 유권자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적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제시한 분석틀을 기반으로, 유권자들의 정당 정치에 대한 태도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의 투표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브렉시트 투표 실시 후에 투표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유권자들의 기존 지지 정당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 질문 1] 유권자들의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와 영국 및 유럽연합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이 브렉시트 국민투표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연구 질문 2] 브렉시트 투표 과정과 결과는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위와 같은 연구 질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각 유권자가 일체감을 갖는 정당과 투표 선택을 기반으로 유권자층을 구분하고, 해당 유권자층별로 투표 선택에 영향을 준 변수들이 무엇이며, 투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영국의 대표적인 양대 정당인 보수당과 노동당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당들은 현재 의회 내 의석을 갖고 있는 보수당, 노동당, 스코틀랜드민족당(Scottish National Party),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 Party) 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브렉시트라는 이슈의 특성상 유럽연합 탈퇴라는 단일 이슈에 기반하여 창당된 영국독립당(UKIP: United Kingdom Independence Party)도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영국독립당은 ‘유럽연합 탈퇴’라는 단일 이슈에 기존한 정당이며, 스코틀랜드민족당은 지지층이 지역적으로 스코틀랜드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각각 제외했다. 자유민주당은 의석 수나 여론 지지율 등에서 보수당, 노동당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같은 수준에서 분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제외했다. 또한 자유민주당이 친EU적 입장이 강하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양대 정당인 보수당과 노동당, 두 개의 정당을 분석 대상 정당으로 선정했다.

분석 대상이 되는 유권자층을 브렉시트 국민선거에서의 투표 선택 및 지지 정당에 따라 총 네 개의 유권자군으로 분류할 것이다. [그림 5]에서 보듯이 본 연구는 보수당 및 노동당 지지층을 브렉시트 찬성과 반대측으로 분류한 총 네 개의 유권자군(보수당-탈퇴, 노동당-탈퇴, 보수당-잔류, 노동당-잔류)을 분석 대상으로 분류할 것이다. 이렇게 분류한 까닭은 정당이 명확하게 정치적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 이슈에 대해 유권자 본인이 각자의 기준을 통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수립했을 것이며, 그들의 지지 정당이 브렉시트에 대한 개인의 선호와

동일하거나 다른 입장을 보였을 때,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로 브렉시트가 도출되었을 때, 지지 정당에 대한 긍정 및 부정적 평가의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5] 본 연구의 유권자 그룹 분류 도식화⁸

	보수당	노동당
잔류	유권자 그룹1	유권자 그룹3
탈퇴	유권자 그룹2	유권자 그룹4

⁸ 정당명은 각 정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을 보유한 유권자층(Wave 7 기준)을 의미하며, ‘잔류’ 및 ‘탈퇴’는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해당 유권자가 행사한 투표(Wave9)를 의미한다.

4. 주요 변수 설정

브렉시트 국민투표 선택에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와 영국 및 유럽연합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과정과 결과가 지지 정당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서 각종 변수를 설정했다. 본 연구의 변수들은 (1)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친 변수; (2) 국민투표 결과 이후, 지지 정당 평가에 영향을 미친 변수 등 두 가지로 나뉘어 살펴 보아야 한다. 국민투표에 대한 투표행태를 보기 위해 첫 번째 종속변수는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찬성 여부로 선정했다. 두 번째, 브렉시트 투표 이후 유권자의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기 위한 종속 변수들은 크게 1)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지지 정당 평가 관련 변수(정당일체감 강도, 정당 당수에 대한 평가 등)와 2) 지지 해당 정당에 대한 투표 의향도로 나누어 평가할 것이다.

The American Voter(Campbell, et al.,1960)에 따르면 유권자의 투표 선택은 정당일체감과 같은 장기적 충성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비교적 안정적 정당 정치가 유지되어 온 영국에서 정당일체감은 고려되어야 하는 변수이다. 그러나,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단일 이슈를 둘러싼 결정이기 때문에 정당 당수 호감도와 같은 단기적 요인의 영향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당 당수 호감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Webb, 2004; Barisione, 2009; Garzia, 2011). 즉, 기존 연구는 정당일체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 당수의 영향력(Dinas, 2008)을 분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Marks, 1993). 또한, 정당에 투표할 의향을 정당 평가 측정 변수로 설정하였다. 브렉시트에 대한 자신과 지지 정당

간의 견해가 다를 때, 혹은 브렉시트에 반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찬성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자신의 기존 정당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그 정당에 투표하려는 의향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주요 종속변수는 투표 전에는 브렉시트 투표에서의 유권자의 선택(탈퇴 선택 여부)이며, 투표 후에는 지지 정당일체감 강도; 지지 정당 당수에 대한 선호도; 지지 정당에 대한 투표 의향도 등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고려한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두 분석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통제변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다. 먼저, 기존 연구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된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연령, 학력 수준, 거주지(영국, 스코틀랜드), 직업(화이트컬러 여부) 등을 포함했다. 나아가,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있어 이민자 이슈가 핵심 변수로 인식되었다는 것에 기반하여, 외국인 부모를 두었는지 여부 또한 포함했다.

첫 번째 연구 질문인 브렉시트 투표 선택에 미친 요인을 보기 위해서 1)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정당일체감 강도, 지지 정당 당수 선호도); 2) 민주주의 체제 평가(영국 민주주의 제도 평가, 유럽연합 민주주의 제도 평가); 3) 이민자 유입에 따른 영국 내 문화적 영향력 등의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포함했다. 마지막의 ‘이민자 유입에 따른 영국 내 문화적 영향력’ 변수는 문화적인 변수들이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는(Inglehart & Norris, 2016) 기존 연구의 결과를 참고했다.

이는 해당 변수를 포함했을 때에도 주요 독립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포함했다.

또한, 두 번째 연구 질문인 투표 이후의 지지 정당 평가를 보기 위해서, 우선 유권자들이 유럽연합 탈퇴라는 결과에 대해 자신의 지지 정당과 정당 당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즉, 직접적으로 투표 결과의 책임을 지지 정당과 당수에 묻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투표 과정에서 영국의 정당이 효용성이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이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지지 정당은 얼마나 통합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는지 등의 변수들을 통해 유권자들이 투표 과정에서 정당 체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지지 정당 평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표 2] 연구 질문별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정리

[질문1]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무엇인가?		
종속변수	'유럽연합 탈퇴' 선택 여부	
독립변수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	정당일체감 강도; 당수 선호도
	민주주의 체제 평가	영국 민주주의 체제 평가; 유럽연합 민주주의 체제 평가
	이민자 이슈	이민자 유입에 따른 영국 내 문화적 영향력 평가
	인구통계학적 변수	연령, 학력 수준, 거주지(영국, 스코틀랜드), 직업(화이트칼러), 외국인 부모 보유 여부
[질문2] 국민투표 이후, 유권자들의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종속변수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	정당일체감 강도; 당수 선호도; 투표 의향도
독립변수	투표 결과에 대한 정당 평가	지지 정당 및 당수에 대한 Credit / Blame 정도
	영국 정당 체제에 대한 평가	지지 정당 통합도; 정당 체계 효용도
	인구통계학적 변수	연령, 학력 수준, 거주지(영국, 스코틀랜드), 직업(화이트칼러), 외국인 부모 보유 여부

제 4 장 데이터 분석

1. 브렉시트 투표에 대한 분석

브렉시트 투표 행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브렉시트에 찬성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특징에 대해 분석했다. 이를 위해 브렉시트 국민투표 선택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국민투표 이후에 수행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와 영국 및 유럽연합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투표행태에 대한 분석에는 모두 세 가지 부문에 대한 독립변수들이 포함되었다. 첫 번째는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로, 지지 정당의 정당일체감 강도, 당수 선호도가 포함되었다. 두 번째인 ‘민주주의 체제 평가’는 영국 민주주의 체제 평가, 유럽연합 민주주의 체제 평가 변수가 포함되었다. 세 번째는 이민자 이슈로, 이민자 유입에 따른 영국 내 문화적 영향력 평가 변수가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기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으며,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브렉시트 투표 선택에 있어 주요 정당의 정당일체감 강도는 음의 방향성을 갖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우선, 보수당의 정당일체감 강도는 음의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수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이 약할수록 유럽연합 탈퇴인 브렉시트에

투표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노동당의 경우에는 정당일체감 강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당수 선호도 또한 정당일체감 강도와 같이 보수당에서는 음의 방향성이 나타난 반면, 노동당에서는 통계적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보수당 지지자들은 보수당의 당수인 캐머런에 대한 선호도가 낮을수록 브렉시트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노동당의 경우에는 당수인 코빈에 대한 선호도가 브렉시트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민주주의 체제 평가에 대한 변수들은 보수당과 노동당을 막론하고 동일한 방향성의 영향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표 3]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투표 선택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i>Pro-Brexit Vote</i>		Coefficients (Standard Errors)	
		Conservative	Labour
Control Variables	Foreign Parents	-0.06(0.14)	0.03(0.14)
	Age	0.11(0.06)	-0.01(0.06)
	Education Level	-0.26(0.03)***	-0.32(0.03)***
	England Residence	-0.16(0.19)	0.17(0.16)
	Scotland Residence	-0.81(0.23)***	-0.38(0.21)
	Occupation: White Collar	-0.29(0.11)**	-0.20(0.10)
Favored Party Assessment	Party Identification Strength	-0.25(0.07)***	0.10(0.07)
	Party Leadership Favorability	-0.19(0.02)***	0.01(0.01)
Democratic System Assessment	Satisfaction Level with UK Democratic System	0.18(0.07)*	0.59(0.07)***
	Satisfaction Level with EU Democratic System	-1.30(0.06)***	-1.41(0.07)***
Other	Cultural Influence of Immigration	-0.34(0.02)***	-0.52(0.02)***
Constant		6.36(0.42)***	3.40(0.37)***
Number of obs		3,455	3,608
Pseudo R-square		0.30	0.37

*p<0.05, **p<0.01, ***p<0.00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 오차를 나타낸다.

민주주의 체제의 경우에는 두 정당 지지자들 모두 그 만족도가 높을수록 유럽연합 탈퇴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유럽 민주주의 체제 변수는 보수당과 노동당 지지자들 모두 그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유럽연합 탈퇴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민자 유입에 따른 문화적 영향력은 보수당과 노동당 지지자 모두에게 음의 영향력을 보유했다. 즉,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이민자 유입이 영국의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수록 유럽연합 탈퇴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보수당의 경우 정당일체감이나 당수에 대한 요인이 브렉시트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보다 흥미로운 점은 영국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유럽연합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브렉시트 투표 확률이 높았다는 점이다. 브렉시트 찬성 투표가 영국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만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결과는 흥미롭다.

2. 국민투표 결과가 지지 정당 평가에 미치는 영향

보수당과 노동당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 브렉시트 국민투표 과정을 거쳐 유럽연합 탈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렇다면, 브렉시트 결과 이후 유권자들이 자신의 지지 정당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유권자군별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1) 지지 정당 정당일체감 강도; 2) 지지 정당 당수 호감도 등의 지지 정당 평가 등의 종속 변수들을 포함했다. 또한, 3) 지지 정당 투표의향도 또한 포함하였다. 국민투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정당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표의향도 변수를 포함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정당 태도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했다.

국민투표 이후 유권자군별 지지 정당 평가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 영향력을 분석할 변수는 지지 정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의 강도이다. 해당 분석의 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으며, 이를 통해 두 가지의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보수당의 잔류 투표자군을 제외한 모든 투표자군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 지지 정당에 책임을 묻는다는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탈퇴측과 잔류측의 영향력 방향성이 반대라는 점이 눈에 띈다. 탈퇴측에서는 유럽연합 탈퇴의 결과가 지지 정당 덕분(Credit)이라고 생각할수록 정당일체감 강도가 높아진 반면, 노동당 잔류측에서는 투표 결과가 노동당 탓(Blame)이 아니라고 생각할수록 정당일체감이 높아지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다.

둘째, 지지 정당과 투표 선택과 무관하게 모든 유권자군에서 지지 정당의 통합도와 정당 효용성 변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지지 정당의 통합도가 높았다고 평가했을수록, 그리고 영국 정치에 있어 정당 효용도가 높다고 생각했을수록 지지 정당의 정당일체감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영향력은 모든 유권자군에서 모두 양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표 4] 유권자군별 정당 정당일체감 강도에 대한 회귀분석

<i>Favored Party Identification Strength</i>		Coefficients (Standard Errors)			
		Conservative		Labour	
		Stay	Leave	Stay	Leave
Control Variables	Foreign Parents	0.08(0.05)	0.03(0.04)	0(0.04)	-0.01(0.07)
	Age	0.05(0.02)	0(0.02)	0.09(0.02)***	0.02(0.03)
	Education Level	-0.05(0.02)**	-0.02(0.01)	-0.02(0.01)	-0.02(0.02)
	England Residence	-0.15(0.08)	-0.01(0.05)	-0.09(0.04)*	-0.12(0.07)
	Scotland Residence	-0.05(0.1)	0.03(0.07)	-0.21(0.05)***	-0.26(0.1)**
	Occupation: White Collar	0.08(0.05)	0.06(0.03)	-0.09(0.03)**	0.02(0.04)
Blame / Credit Favored Party for the 'Brexit'	Party's Roles	-0.07(0.05)	0.1(0.03)**	-0.1(0.04)*	0.19(0.07)*
	Party Leadership's Roles	-0.06(0.05)	0.04(0.03)	-0.08(0.03)**	-0.01(0.07)
UK Party System Evaluation	Favored Party's United Level	0.08(0.02)***	0.06(0.01)***	0.06(0.01)***	0.1(0.02)***
	Party Efficacy	0.14(0.02)***	0.12(0.01)***	0.14(0.01)***	0.07(0.02)***
Constant		1.29(0.15)***	1.35(0.09)***	1.57(0.08)***	1.6(0.12)***
Number of obs		1,219	2,311	2,704	1,273
R-square		0.10	0.07	0.09	0.05

*p<0.05, **p<0.01, ***p<0.00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 오차를 나타낸다.

국민투표 이후 유권자군별 지지 정당 평가에 대한 두 번째 변수는 지지 정당의 당수에 대한 호감도이다. 해당 변수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으며, 본 분석을 통해서 두 가지의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노동당의 탈퇴 투표자군을 제외한 모든 투표자군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 지지 정당의 당수에 책임을 묻는다는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변수는 음의 영향력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즉, 지지 정당 당수가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당수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했다.

또한, 정당일체감 강도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지 정당과 투표 선택과 무관하게 모든 유권자군에서 지지 정당의 통합도와 정당 효용성 변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지지 정당의 통합도가 높았다고

[표 5] 유권자군별 정당 당수 호감도에 대한 회귀분석

<i>Favorability of the Favored Party Leadership</i>		Coefficients (Standard Errors)			
		Conservative		Labour	
		Stay	Leave	Stay	Leave
Control Variables	Foreign Parents	0.05(0.15)	-0.18(0.18)	0.09(0.14)	0.81(0.29)**
	Age	0.01(0.07)	-0.25(0.08)**	-0.21(0.07)**	-0.37(0.13)**
	Education Level	-0.16(0.04)**	-0.07(0.04)	0.04(0.04)	0.21(0.07)**
	England Residence	-0.4(0.24)	0.26(0.2)	-0.21(0.16)	0.04(0.3)
	Scotland Residence	-0.64(0.28)*	0.38(0.28)	-0.72(0.21)**	0.27(0.42)
	Occupation: White Collar	0.17(0.14)	0.03(0.12)	-0.14(0.12)	0.17(0.18)
Blame / Credit Favored Party for the 'Brexit'	Party's Roles	-0.1(0.14)	0.23(0.14)	0.47(0.16)**	-0.33(0.33)
	Party Leadership's Roles	-1.45(0.14)***	-0.48(0.14)***	-3.15(0.12)***	0.08(0.29)
UK Party System Evaluation	Favored Party's United Level	0.32(0.05)***	0.74(0.05)***	0.42(0.05)***	0.81(0.09)***
	Party Efficacy	0.39(0.05)***	0.38(0.05)***	0.47(0.04)***	0.44(0.07)***
Constant		6.51(0.41)***	3.4(0.37)***	4.83(0.33)***	1.69(0.55)**
Number of obs		1,213	2,307	2,682	1,252
R-square		0.23	0.13	0.32	0.13

* p < 0.05, ** p < 0.01, *** p < 0.00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 오차를 나타낸다.

평가했을수록, 그리고 영국 정치에 있어 정당 효용도가 높다고 생각했을수록 지지 정당의 당수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투표 이후 유권자군별 지지 정당 평가에 대한 마지막 변수는 지지 정당에 대한 투표 의향도이다. 본 연구는 [표 6]을 통해 지지 정당 투표 의향도에 대한 두 가지의 특징을 도출해냈다. 해당 변수 분석 결과에서 눈에 띄는 점은 투표 선택군별로, 그리고 지지 정당 및 투표 선택과 무관하게 동일한 영향력의 방향성을 보유하는 독립 변수들이 함께 도출된다는 점이다.

우선,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투표 선택군별로 동일한 영향력이 방향성을 보여주는 변수는 지지 정당이 유럽연합 탈퇴라는 국민투표 결과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변수였다. 해당 변수는 노동당 탈퇴군을 제외한 모든 투표자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잔류층의 경우 모든 지지 정당군에서 음의 방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투표 결과를 자신의 지지 정당 탓(Blame)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지지 정당에 대한 투표 의향도가 상승했다. 반면, 보수당 탈퇴층의 경우에는 양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투표 결과가 지지 정당 덕분(Credit)이라고 생각할수록 보수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아가, 지지 정당과 투표 결정과 무관하게 지지 정당 당수에 대한 책임 부여 및 영국 내 정당 체계에 대한 평가 변수들은 모든 유권자군 내에서 동일한 방향성을 보였다. 우선, 투표 결과에 대해 지지 정당 당수가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노동당 탈퇴층을 제외한 모든 유권자군에서 음의 방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유럽연합 탈퇴라는 투표 결과가 자신의 정당 당수 탓(Blame) 또는 덕분(Credit)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지지 정당에 대한 투표 의향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영국 정당 체제에 대한 평가인 지지 정당 통합도 및 정당 체계의 효용도에 대한 평가는 모든 유권자층에서 양의 방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곧, 지지 정당 및 투표 결정과 무관하게, 지지 정당의 통합도가 높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정당의 효용성이 높다고 평가했을수록 자신의 지지 정당에 대한 투표 의향도가 상승했다.

[표 6] 유권자군별 지지 정당 투표 의향도에 대한 회귀분석

<i>Voting Intention for the Favored Party</i>		Coefficients (Standard Errors)			
		Conservative		Labour	
		Stay	Leave	Stay	Leave
Controlled Variables	Foreign Parents	-0.25(0.16)	-0.1(0.14)	-0.09(0.1)	-0.22(0.24)
	Age	0.06(0.07)	-0.12(0.06)	-0.11(0.05)*	-0.16(0.11)
	Education Level	-0.05(0.05)	0(0.03)	0(0.03)	0.02(0.06)
	England Residence	0.3(0.24)	0.06(0.16)	-0.31(0.12)**	-0.13(0.26)
	Scotland Residence	0.51(0.29)	0.38(0.22)	-0.83(0.15)***	-0.14(0.36)
	Occupation: White Collar	0.23(0.14)	0.3(0.09)**	0.05(0.08)	0.18(0.16)
Blame / Credit Favored	Party's Roles	-0.51(0.15)**	0.3(0.11)**	-0.3(0.11)**	0.41(0.28)
Party for the 'Brexit'	Party Leadership's Roles	-0.37(0.14)*	-0.29(0.11)**	-0.66(0.09)***	-0.39(0.25)
UK Party System Evaluation	Favored Party's United Level	0.24(0.06)***	0.35(0.04)***	0.2(0.04)***	0.58(0.08)***
	Party Efficacy	0.3(0.05)***	0.4(0.04)***	0.41(0.03)***	0.5(0.06)***
Constant		6.68(0.43)***	6.09(0.29)***	7.54(0.24)***	5.17(0.46)***
Number of obs		1,193	2,281	2,671	1,233
R-square		0.09	0.10	0.13	0.11

* p < 0.05, ** p < 0.01, *** p < 0.00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 오차를 나타낸다.

요약하면, 국민투표 과정에서 지지 정당이 자신의 투표 선택과 유사한 태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을 때, 정당일체감과 투표 의향도가 상승했다. 즉, 유권자가 지지 정당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정당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잔류에 투표한 유권자들은 브렉시트 결과가 지지 정당 탓(Blame)이 아니라고 생각할수록, 반대로 탈퇴에 투표한 유권자들은 투표 결과가 지지 정당 덕분(Credit)이라고 생각할수록 지지 정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더욱 흥미로운 점은 유권자의 지지 정당 및 투표 선택과 상관 없이 정당 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지지 정당이 통합되어 있다고 느낄수록, 그리고 영국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정당 효용도가 높다고 평가할수록 지지 정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투표 과정에서 지지 정당이 얼마나 통합된 모습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영국 정치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했을 때 그 정당이 사회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가 지지 정당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7] 유권자군별 지지 정당 정당일체감·정당 당수 선호도.
지지 정당 투표 의향도에 대한 회귀분석

Post-Referendum Analysis Coefficients (Standard Error)	Favored Party Identification Strength				Favorability of the Favored Party Leadership				Voting Intention for the Favored Party			
	Conservative		Labour		Conservative		Labour		Conservative		Labour	
	Stay	Leave	Stay	Leave	Stay	Leave	Stay	Leave	Stay	Leave	Stay	Leave
Foreign Parents	0.08(0.05)	0.05(0.04)	0.0(0.04)	-0.01(0.07)	0.05(0.15)	-0.18(0.18)	0.09(0.14)	0.81(0.29)**	-0.25(0.16)	-0.1(0.14)	-0.09(0.1)	-0.22(0.24)
Age	0.05(0.02)	0(0.02)	0.09(0.02)***	0.02(0.03)	0.01(0.07)	-0.25(0.08)**	-0.21(0.07)**	-0.37(0.13)**	0.86(0.07)	-0.12(0.06)	-0.11(0.05)*	-0.16(0.11)
Education Level	-0.05(0.02)**	-0.02(0.01)	-0.02(0.01)	-0.02(0.02)	-0.16(0.04)**	-0.07(0.04)	0.04(0.04)	0.21(0.07)**	-0.05(0.05)	0(0.03)	0(0.03)	0.02(0.06)
England Residence	-0.15(0.08)	-0.01(0.05)	-0.09(0.04)*	-0.12(0.07)	-0.40(0.24)	0.26(0.2)	-0.21(0.16)	0.04(0.3)	0.3(0.24)	0.06(0.16)	-0.31(0.12)**	-0.13(0.26)
Scotland Residence	-0.05(0.1)	0.05(0.07)	-0.21(0.05)***	-0.26(0.1)**	-0.64(0.28)*	0.38(0.28)	-0.72(0.21)**	0.77(0.42)	0.51(0.29)	0.30(0.22)	-0.85(0.15)**	-0.14(0.36)
Occupation: White Collar	0.08(0.05)	0.06(0.05)	-0.09(0.05)**	0.02(0.04)	0.17(0.14)	0.03(0.12)	-0.14(0.12)	0.17(0.18)	0.33(0.14)	0.3(0.09)**	0.05(0.08)	0.18(0.16)
Blame / Credit Favored Party for the Brexit	-0.07(0.05)	0.1(0.03)**	-0.11(0.04)*	0.19(0.07)*	-0.1(0.14)	0.23(0.14)	0.47(0.16)**	-0.33(0.33)	-0.51(0.15)**	0.3(0.11)**	-0.3(0.11)**	0.41(0.28)
Party Leadership's Roles	-0.06(0.05)	0.04(0.03)	-0.08(0.03)**	-0.01(0.07)	-1.45(0.14)***	-0.48(0.14)***	-3.15(0.12)***	0.80(0.29)	-0.57(0.14)*	-0.29(0.11)**	-0.66(0.09)***	-0.39(0.25)
Favored Party's United Level	0.08(0.02)***	0.06(0.01)***	0.06(0.01)***	0.1(0.02)***	0.32(0.05)***	0.74(0.05)***	0.42(0.05)***	0.81(0.09)***	0.24(0.06)***	0.35(0.04)***	0.2(0.04)***	0.58(0.08)***
UK Party System Evaluation	0.14(0.02)***	0.12(0.01)***	0.14(0.01)***	0.07(0.02)***	0.39(0.05)***	0.38(0.05)***	0.47(0.04)***	0.44(0.07)***	0.3(0.05)***	0.4(0.04)***	0.41(0.03)***	0.5(0.06)***
Party Efficacy	1.29(0.15)***	1.35(0.09)***	1.57(0.08)***	1.6(0.12)***	6.51(0.41)***	3.40(0.37)***	4.38(0.35)***	1.69(0.55)**	6.68(0.43)***	6.09(0.29)***	7.54(0.24)***	5.17(0.46)***
Constant	1.219	2.311	2.704	1.273	1.213	2.307	2.682	1.252	1.195	2.281	2.671	1.233
Number of obs												
R-square	0.10	0.07	0.09	0.05	0.23	0.13	0.32	0.13	0.09	0.10	0.13	0.11

제 5 장 종합 논의

앞서 수행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과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과정과 결과가 유권자들의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그 의미를 분석해볼 것이다.

먼저,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의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보수당 탈퇴 투표자군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독립 변수였던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정당일체감 강도, 당수 호감도)와 영국 및 유럽연합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변수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 노동당의 경우는 민주주의 평가 관련 변수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결과는 두 가지이다.

첫째,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 변수들은 보수당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노동당에서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보수당에서는 정당일체감의 강도와 캐머런에 대한 호감도가 낮을수록, 유럽연합 탈퇴에 투표했다. 이를 통해 보수당 지지자들 중 보수당과 당수인 캐머런이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유한 이들이 브렉시트에 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노동당의 경우에는 당수였던 코빈이 브렉시트 반대라는 당론과 관련된 캠페인에 뒤늦게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이 통일된 당론을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노동당 지지자들 중 유럽연합 탈퇴에 투표한 이들의 경우에는

노동당과 당수에 대한 평가가 그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선택에 있어 주요 정당 지지자군 중에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친 유권자군은 투표 과정에 걸쳐 통일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한 보수당의 지지자군 뿐이었다.

둘째, 영국 및 유럽연합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모든 평가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각 변수별 영향력의 방향성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흥미로운 점은 영국의 민주주의 만족도와 유럽연합의 민주주의 만족도 변수들의 영향력 방향성이 반대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유럽연합 탈퇴에 투표한 유권자들은 모두 영국 민주주의 체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유럽연합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를 통해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표 3]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투표 선택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i>Pro-Brexit Vote</i>		Coefficients (Standard Errors)	
		Conservative	Labour
Control Variables	Foreign Parents	-0.06(0.14)	0.03(0.14)
	Age	0.11(0.06)	-0.01(0.06)
	Education Level	-0.26(0.03)***	-0.32(0.03)***
	England Residence	-0.16(0.19)	0.17(0.16)
	Scotland Residence	-0.81(0.23)***	-0.38(0.21)
	Occupation: White Collar	-0.29(0.11)**	-0.20(0.10)
Favored Party Assessment	Party Identification Strength	-0.25(0.07)***	0.10(0.07)
	Party Leadership Favorability	-0.19(0.02)***	0.01(0.01)
Democratic System Assessment	Satisfaction Level with UK Democratic System	0.18(0.07)*	0.59(0.07)***
	Satisfaction Level with EU Democratic System	-1.30(0.06)***	-1.41(0.07)***
Other	Cultural Influence of Immigration	-0.34(0.02)***	-0.52(0.02)***
Constant		6.36(0.42)***	3.40(0.37)***
Number of obs		3,455	3,608
Pseudo R-square		0.30	0.37

* p<0.05, ** p<0.01, *** p<0.00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 오차를 나타낸다.

유럽연합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반면, 영국의 민주주의 체제에 신뢰가 있을 때 유럽연합 탈퇴에 투표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영국 유권자 중 유럽연합의 ‘민주적 결핍’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이들이 탈퇴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유권자군별로 투표 결과에 대한 지지 정당·당수의 역할과 영국 내 정당 체계에 대한 평가가 기존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지지 정당 정당일체감 강도·당수 호감도·투표 의향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첫 번째 종속변수인 정당일체감의 강도에 대해 일부 유권자층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 변수들이었으며, 모든 유권자층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정당 체계에 대한 평가 관련 변수들이었다. 이 중 특히 투표 결과에 대한 지지 정당의 책임 여부와 영국 정당 체계에 대한 변수들의 영향력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지지 정당의 책임 소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잔류측과 탈퇴측에서 영향력의 방향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잔류측에서는 브렉시트가 지지 정당 탓(Blame)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정당일체감의 강도가 높았지만, 그에 반해 탈퇴측에서는 브렉시트가 지지 정당 덕분(Credit)이라고 생각할수록 정당일체감의 강도가 높아졌다. 이는 각 유권자군들이 지지 정당이 자신의 투표 선택과 유사한 태도를 보여줬다고 믿을 때 정당일체감이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는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지 정당이 자신의 의견과 동일한 당론을 제시해주었을 때 정당에 대한 평가가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수당 잔류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수당 잔류 측의 경우에는 캐머런 당수가 국민투표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당의 당론은 ‘유럽연합 잔류’로 명확히 수립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지 정당에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지지 정당에 대한 책임 관련 변수가 그 집단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국의 정당 체제에 대한 평가 관련 변수들인 지지 정당의 통합도 및 정당 효용성에 대한 평가는 모든 유권자군에서 양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은 국민투표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지지 정당이 통일된 입장을 보여줬다고 느꼈을수록, 그리고 정치 운영에 있어서 정당 효용도가 높다고 생각했을수록, 정당일체감 강도가 높아졌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지지 정당이 자신의 입장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통합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는 것과, 정치 체계 내에서 각 정당의 상이한 입장과 태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도출할 수 있다고 느낄 때 지지 정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당일체감 강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유권자들은 정당이 효용성을 지닌 정치 체제 하에서 자신의 지지 정당이 통합된 모습을 보여줬고, 또한 그 모습이 자신이 투표에서 제시한 입장과 유사하다고 생각했을 때 정당일체감이 높아졌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정당의 효용성이 높은 민주주의 체제를 기대하며, 해당 체제 내에서 정당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통합된 당론’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그들의 통합된 모습이 유권자들의 의견과 동일한 방향성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 또한 분석 결과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표 4] 유권자군별 정당 정당일체감 강도에 대한 회귀분석

<i>Favored Party Identification Strength</i>		Coefficients (Standard Errors)			
		Conservative		Labour	
		Stay	Leave	Stay	Leave
Control Variables	Foreign Parents	0.08(0.05)	0.03(0.04)	0(0.04)	-0.01(0.07)
	Age	0.05(0.02)	0(0.02)	0.09(0.02)***	0.02(0.03)
	Education Level	-0.05(0.02)**	-0.02(0.01)	-0.02(0.01)	-0.02(0.02)
	England Residence	-0.15(0.08)	-0.01(0.05)	-0.09(0.04)*	-0.12(0.07)
	Scotland Residence	-0.05(0.1)	0.03(0.07)	-0.21(0.05)***	-0.26(0.1)**
	Occupation: White Collar	0.08(0.05)	0.06(0.03)	-0.09(0.03)**	0.02(0.04)
Blame / Credit Favored Party for the 'Brexit'	Party's Roles	-0.07(0.05)	0.1(0.03)**	-0.1(0.04)*	0.19(0.07)*
	Party Leadership's Roles	-0.06(0.05)	0.04(0.03)	-0.08(0.03)**	-0.01(0.07)
UK Party System Evaluation	Favored Party's United Level	0.08(0.02)***	0.06(0.01)***	0.06(0.01)***	0.1(0.02)***
	Party Efficacy	0.14(0.02)***	0.12(0.01)***	0.14(0.01)***	0.07(0.02)***
Constant		1.29(0.15)***	1.35(0.09)***	1.57(0.08)***	1.6(0.12)***
Number of obs		1,219	2,311	2,704	1,273
R-square		0.10	0.07	0.09	0.05

* $p < 0.05$, ** $p < 0.01$, *** $p < 0.00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 오차를 나타낸다.

두 번째 종속변수였던 지지 정당 당수 호감도에서도 두 가지의 흥미로운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대부분의 유권자군에서 국민투표의 결과에 대한 지지 정당 당수의 책임 여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갖는 음의 방향성을 보였다. 보수당과 노동당 잔류측에서는 자신들이 반대한 브렉시트라는 결과가 투표에서 도출됨에 있어서 당수를 탓하지(Blame) 않았을수록 당수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 반면, 탈퇴측의 경우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보수당 탈퇴측의 경우에는 캐머런이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Credit) 못했다고 생각했을수록 캐머런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브렉시트 투표가 수행된 2016년 6월 23일 직후인 6월 24일에 캐머런이 보수당 당수 자리를 사퇴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보수당 탈퇴측에서는 브렉시트 결과에 있어 캐머런에 책임을 묻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캐머런이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에 책임을 지고 사퇴함으로써 그들의 바라던 지지정당의 당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노동당 탈퇴측에서는 당수에 대한 책임 소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는 것 또한 흥미롭다. 코빈은 기존에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개인적 차원의 의견을 취하고 있었고, 노동당의 당론인 ‘잔류’ 캠페인에 뒤늦게 참석했다. 하지만, 노동당 전체는 통일된 당론을 이끌어냈고, 마지막에는 코빈 또한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코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당 탈퇴측의 코빈 호감도 향상에 있어서 브렉시트에 대한 코빈의 평가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정당일체감 강도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유권자군에서 정당 체제에 대한 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으며, 그 방향성 또한 동일한 양의 방향성을 보유했다. 즉, 지지 정당 당수에 대한 선호도 또한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통합도’ 높은 정당의 모습을 보였을 때와 정당들이 차별화된 입장을 기반으로 사회적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정당 효용도가 높은 민주주의 체제가 마련되었을 때 지지 정당의 당수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했다. 결국,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의 또 다른 변수인 당수 선호도 또한 지지 정당과 투표 결정에 무관하게 지지 정당 통합도 및 정당 효용도가 높다고 생각할수록 강도가 높아졌다. 즉, 정당일체감 강도와 같이 지지 정당의 당수의 호감도

변수에서도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정당의 역할과 그를 운영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모든 유권자군에서 동일한 방향성의 영향력을 보유했다.

[표 5] 유권자군별 정당 당수 호감도에 대한 회귀분석

<i>Favorability of the Favored Party Leadership</i>		Coefficients (Standard Errors)			
		Conservative		Labour	
		Stay	Leave	Stay	Leave
Control Variables	Foreign Parents	0.05(0.15)	-0.18(0.18)	0.09(0.14)	0.81(0.29)**
	Age	0.01(0.07)	-0.25(0.08)**	-0.21(0.07)**	-0.37(0.13)**
	Education Level	-0.16(0.04)**	-0.07(0.04)	0.04(0.04)	0.21(0.07)**
	England Residence	-0.4(0.24)	0.26(0.2)	-0.21(0.16)	0.04(0.3)
	Scotland Residence	-0.64(0.28)*	0.38(0.28)	-0.72(0.21)**	0.27(0.42)
	Occupation: White Collar	0.17(0.14)	0.03(0.12)	-0.14(0.12)	0.17(0.18)
Blame / Credit Favored Party for the 'Brexit'	Party's Roles	-0.1(0.14)	0.23(0.14)	0.47(0.16)**	-0.33(0.33)
	Party Leadership's Roles	-1.45(0.14)***	-0.48(0.14)***	-3.15(0.12)***	0.08(0.29)
UK Party System Evaluation	Favored Party's United Level	0.32(0.05)***	0.74(0.05)***	0.42(0.05)***	0.81(0.09)***
	Party Efficacy	0.39(0.05)***	0.38(0.05)***	0.47(0.04)***	0.44(0.07)***
Constant		6.51(0.41)***	3.4(0.37)***	4.83(0.33)***	1.69(0.55)**
Number of obs		1,213	2,307	2,682	1,252
R-square		0.23	0.13	0.32	0.13

* $p < 0.05$, ** $p < 0.01$, *** $p < 0.00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 오차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지지 정당 투표 의향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 분석했다. 먼저, 브렉시트라는 투표 결과에 대한 지지 정당의 책임을 묻는 변수는 투표 선택에 따라 그 방향성이 상이하게 도출되었다.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잔류측에 투표한 이들은 브렉시트라는 결과에 대해 자신의 지지 정당의 탓(Blame)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지지 정당에 투표할 확률이 상승했다. 반면, 보수당 탈퇴측은 브렉시트라는 결과가 보수당 덕분(Credit)이라고 생각할수록 보수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결국, 각 유권자군은 자신의 지지 정당이 자신의 투표

결정과 동일한 입장을 보유한다고 생각했을 때, 지지 정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아졌다. 하지만, 노동당 탈퇴측의 경우 지지 정당에 책임을 묻는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그들의 투표 선택이 기존 지지 정당의 당론 및 당수의 입장과 상이했기 때문에, 국민투표의 과정과 결과가 그들의 지지 정당에 대한 투표 의향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세 가지의 변수들에서 지지 정당 및 투표 선택과 무관하게 동일한 방향성이 도출되었다. 첫째, 투표 결과에 대한 당수의 책임을 부여하는지 여부에 대한 변수는 노동당 탈퇴측을 제외한 모든 유권자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방향성을 보였다. 모든 잔류측에서는 당수가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지지 정당의 당수 탓(Blame)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지지 정당에 대한 투표의향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보수당 탈퇴측의 경우 또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즉, 보수당 탈퇴측은 브렉시트라는 결과에 대해 캐머런에 공을 돌리지(Credit) 않을수록 보수당에 대한 투표 의향도가 향상되었다. 이는 캐머런이 브렉시트에 찬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인데, 그가 사임했기 때문에 보수당에 대한 투표 의향은 높게 나타날 수 있었다. 둘째, 영국 정당 체계 평가에 대한 두 가지 변수들이 모든 유권자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방향성을 보였다. 이는 이미 분석한 정당일체감 강도와 당수 호감도와 동일한 결과이다. 즉, 지지 정당 투표 의향도 또한 다른 정당에 대한 평가와 같이 정당 효용성 있게 활용될 수 있는 정치 체계, 그리고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당의 통합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수록 자신의 지지 정당에 대한 투표 의향도가 상승했다.

[표 6] 유권자군별 지지 정당 투표 의향도에 대한 회귀분석

<i>Voting Intention for the Favored Party</i>		Coefficients (Standard Errors)			
		Conservative		Labour	
		Stay	Leave	Stay	Leave
Controlled Variables	Foreign Parents	-0.25(0.16)	-0.1(0.14)	-0.09(0.1)	-0.22(0.24)
	Age	0.06(0.07)	-0.12(0.06)	-0.11(0.05)*	-0.16(0.11)
	Education Level	-0.05(0.05)	0(0.03)	0(0.03)	0.02(0.06)
	England Residence	0.3(0.24)	0.06(0.16)	-0.31(0.12)**	-0.13(0.26)
	Scotland Residence	0.51(0.29)	0.38(0.22)	-0.83(0.15)***	-0.14(0.36)
	Occupation: White Collar	0.23(0.14)	0.3(0.09)**	0.05(0.08)	0.18(0.16)
Blame / Credit Favored Party's Roles		-0.51(0.15)**	0.3(0.11)**	-0.3(0.11)**	0.41(0.28)
Party for the 'Brexit' Party Leadership's Roles		-0.37(0.14)*	-0.29(0.11)**	-0.66(0.09)***	-0.39(0.25)
UK Party System Evaluation	Favored Party's United Level	0.24(0.06)***	0.35(0.04)***	0.2(0.04)***	0.58(0.08)***
	Party Efficacy	0.3(0.05)***	0.4(0.04)***	0.41(0.03)***	0.5(0.06)***
Constant		6.68(0.43)***	6.09(0.29)***	7.54(0.24)***	5.17(0.46)***
Number of obs		1,193	2,281	2,671	1,233
R-square		0.09	0.10	0.13	0.11

*p<0.05, **p<0.01, ***p<0.00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 오차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지 정당에 대한 정당일체감 강도와 당수 호감도, 그리고 투표 의향도 등의 정치 태도를 의미하는 종속 변수들의 평가에 있어, 모든 유권자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력을 보유한 변수들은 국내 정당 체계 관련 평가(지지 정당 통합성 및 정당 효용성) 변수들이었다. 이는 단순히 브렉시트 이슈에 대해 지지 정당이나 정당 지도부가 자신의 의견과 동일한 입장을 보유했는지, 또는 반대의 의견을 피력했는지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당 체계 그 자체와 해당 체계 내에서 자신의 지지 정당이 정당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보유할 때, 지지 정당 정당일체감의 강도, 지지 정당의 당수에 대한 호감도, 그리고 지지 정당 투표 의향도 모두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의 분석에 따르면, 브렉시트와 같이 정당이 명확한 이슈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제시하지 못했을 경우, 유권자들이 해당 브렉시트 이슈에 대해 기존 정당이 자신과 동일하거나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 정당 정치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할수록 지지 정당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또한, 유권자들은 정당이 ‘통합된’ 모습을 보여줬는가에 대한 평가 결과는 유권자층이 향후 지지 정당에 대한 행동을 취하는 데에 있어 명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유권자들은 영국의 정당 정치의 기반이 견고하고 지지 정당에 대해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기대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의견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선택의 용이성을 증진시켜주는 이슈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것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전달될 수 있는 정당 정치적 환경을 기대했을 때일수록 기존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쳤다. 이를 역으로 보자면, 만약 영국의 정당 정치 환경과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위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 해당 정당에 대한 정당일체감 강도, 당수 호감도, 그리고 더 나아가 향후 투표 의향도 또한 하락할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제 6 장 결론 및 연구의 함의

본 논문은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요인들이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투표 과정과 결과는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당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정당일체감과 당수에 대한 호감은 보수당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보수당 지지자들은 정당일체감과 당수에 대한 호감도가 낮을수록 브렉시트에 투표했을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더욱 흥미로운 점은 유권자들의 영국과 유럽연합의 민주주의 평가가 브렉시트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영국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유럽연합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유권자들은 유럽연합 탈퇴에 투표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브렉시트에 투표한 유권자들이 영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유럽연합의 민주주의보다 영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을 때 브렉시트에 투표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브렉시트에 투표한 유권자들은 유럽연합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영국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독립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발견된 또 하나의 중요한 결과는 유권자들은 투표 과정과 정치적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점이다. 즉, 유권자들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정당이 보여준 역할과 영국의 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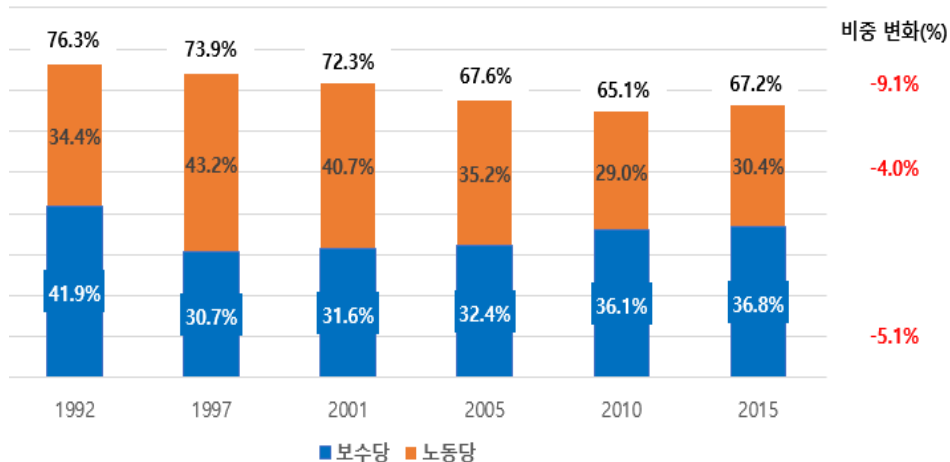
정치 체제에 대해 평가를 하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유권자들의 지지 정당에 대한 태도가 변화한다는 것이다.

위의 분석 결과는 지지 정당이 통일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영국 정당 정치 체제에서 정당의 효용도가 낮다고 평가했을 때, 유권자들은 지지 정당에 대한 태도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만약 지지 정당이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경우 영국 정당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최근의 영국 정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영국의 정치는 노동당이라는 두 개의 거대 정당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주요 사회적 이슈들은 두 개의 정당의 입장에 기반하여 논의되어 왔고, 정당은 사회의 변화에 대해 기민하게 반응해왔다. 그러나, 양대 정당은 최근 들어 부상한 새로운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얼마 전 국민투표에까지 이른 ‘스코틀랜드 독립’ 이슈, 그리고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인 ‘유럽연합 탈퇴’ 등에 대해 두 개의 거대 정당들이 다변화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의견을 포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에 대해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주요 정당들이 통일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 보수당과 노동당이 영국의 의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20여 년 간 영국 의회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의 의석 비중은 1992년 76.3%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67.2%로 하락했다. 보수당과 노동당 각각의 비중 또한 모두 하락했다. 보수당의

경우 의석 비중이 1992년 41.9%에서 2015년 36.8%로 4.0% 하락했고, 노동당의 경우는 34.4%에서 30.4%로 5.1% 하락했다.

[그림 6] 영국의 주요 정당별 의석 수 비중 변화



자료: 영국 의회 웹사이트 자료 참고⁹

이와 같이 영국의 의회에서 주요 정당의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사실은 주요 정당이 이슈들에 대해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 결과로 기존 정당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유권자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들에 대해 지지 정당이 명확한 의견을 표출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주요 정당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에 따라 신생 정당에 대한 선호가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지 정당에 대해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바는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과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⁹ “UK Election Statistics: 1918-2017”, UK Parliament Website
(<http://researchbriefings.parliament.uk/ResearchBriefing/Summary/CBP-7529>)

유권자들이 원하는 지지 정당의 모습은 유권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되, 정당 내부에서 그에 대한 입장을 합의에 의해 도출하고 통일성 있게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은 자신의 핵심 의제에 대해 정당들이 관심을 가지고, 통일된 모습으로 당론을 제시하길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볼 때, 주요 정당들은 기존 정당이 미처 포괄하지 못했던 주요 이슈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향후 다각화될 유권자들의 관심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 그에 대한 관심 표명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통일된 당론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정당에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정당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향후 발생 가능한 상세 이슈를 겨냥한 신생정당들의 등장에도 그 입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이는 유권자들이 정당 체계와 지지 정당의 역할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 그들의 정당 지지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상대적으로 신생인 정당들에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함의를 보유한다. 첫째, 세계화, 양극화 등으로 인해 기존 정당이 대응하기 어려운 이슈가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기반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환경, 문화, 이민자, 난민, 정체성 등의 이슈들에 대해 유권자가 주요 정당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투표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영국 및 유럽연합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변수들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영국이 유럽연합이라는 국제 정치경제 공동체로부터 탈퇴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였다. 만약, 브렉시트가 결정된다면 영국의 민주주의 운영 체제가 변화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과연 영국의 유권자들이 유럽연합과 영국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으며, 그것이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분석에 따르면, 브렉시트에 투표한 유권자들은 영국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이들이라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또한 의미가 있다.

셋째, 향후 정당 정치에서는 기존의 ‘정당 → 유권자’라는 일방향적 관계가 아닌 정당과 유권자간 보다 쌍방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확립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데에 의의가 존재한다. 이는 기존의 유권자를 정당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고, 유권자의 지지 정당의 의견에 기반하여 투표에 참여한다는 투표 행태 연구의 골자와 상이한 연구들을 활용한다. 즉, 이는 브렉시트와 같이 정당의 입장이 불명확한 이슈들이 대두될 경우, 정당의 영향력의 축소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투표 행위에 있어 더욱 자발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기존 정당이 대응하지 못하는 이슈가 많아졌을 경우, 해당 현상이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미치는 영향과 투표 결과 이후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연구했다. 본 연구의 출발점은 정당이 다루지 못하는 이슈의 경우, 유권자들은 정당의 이슈 관련 정치적 입장에 기반한 투표를 할 수 없기에, 이는 유권자들은 정당이 아닌 다양한 개인적 차원의 변수들에 기반하여 투표 결정을 할 것이라는 데에 있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정당의

역할을 지지 정당이 보여주지 못했을 경우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연구 분석에 따르면, 투표 과정에서 지지 정당이 유권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에 대해 통일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정당 체제 내에서 정당의 효용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향후 정당들이 그들의 지지 기반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통일된 당론을 제시함으로써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효용성을 보여주는 것에 큰 중요성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록] 응답자 분포

분석 자료에 대한 마지막 논의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응답자군의 대표적인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는 [표 8]에 나타나있다. [표 8]에 따르면, 본 연구의 응답자 중 35세 미만은 전체의 15.80%, 36세-65세는 61.92%, 66세 이상은 22.28%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영국 통계청의 2015년 인구통계 자료 비중과 비교해보아도 크게 상이하지 않다¹⁰.

[표 8] 연령대별 응답자 비중

	응답자 수	비중
18세 미만	68	0.38
18-25세	965	5.40
26-35세	1,791	10.02
36-45세	2,278	12.75
46-55세	3,474	19.44
56-65세	5,314	29.73
66세 이상	3,982	22.28
합계	17,872	100

또한, 교육 수준별로 보면 본 연구의 응답자들 중 No qualifications의 비중은 8.19%,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영국의

¹⁰ 2015년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자료 기반 저자 분석본

	Population	Portion
Under18	13,770,873	21.2%
18-25	6,773,012	10.4%
26-35	8,808,588	13.5%
36-45	8,400,287	12.9%
46-55	9,126,359	14.0%
56-65	7,320,580	11.2%
66+	10,910,335	16.8%
Total	65,110,034	100.0%

중등교육자격시험) D-G은 5.28%, GCSE A*-C 비중은 22.79%, A-level은 21.02%, 대학교 졸업자 비중은 32.40%, 대학원 이상 졸업자 비중은 10.32%이다. 이는 설문지의 교육 수준 변수를 활용했으며, No qualifications를 1, GCSE D-G를 2, GCSE A*-C를 3, A-level을 4, Undergraduate를 5, Postgrad를 6으로 코딩했다.

[표 9] 교육 수준별 응답자 비중

	응답자 수	비중
무학력자	1,630	8.19
GCSE D-G	1,050	5.28
GCSE A*-C	4,537	22.79
A-level	4,185	21.02
대졸	6,449	32.40
대학원졸	2,054	10.32
합계	19,905	100

마지막으로 직업군별 응답자 비중을 보기 위해 본 연구는 직업군을 크게 White Collar, Blue Collar, Other 등 3개로 wave7의 직업 분류를 기반으로 재분류하였다. 이에 따르면, 본 연구의 응답자군은 White Collar가 71.82%, Blue Collar가 17.81%, 기타가 10.37%로 구성되어 있다.

[표 10] 직업자군별 응답자 비중

	응답자 수	비중
화이트칼라	16,416	71.82
블루칼라	4,070	17.81
기타	2,370	10.37
합계	22,856	100

참고 문헌

양적 자료

“British Election Study 2015(Wave 7-9)”, Consortium of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The University of Oxford, and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2014-2016

국외 문헌

Achen, C. (1992). Social psychology, demographic variables, and linear regression: Breaking the iron triangle in voting research. *Political Behavior*, 14(3), 195-211.

Akkerman, A., Mudde, C., & Zaslove, A. (2014). How Populist Are the People? Measuring Populist Attitudes in Voter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7(9), 1324-1353.

Anderson, C. J., & Guillory, C. A. (1997). Political Institutions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 Cross-National Analysis of Consensus and Majoritarian System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1), 66-81.

Barisione, M. (2009). So, What Difference Do Leaders Make? Candidates' Images and the “Conditionality” of Leader Effects on Voting. *Journal of Elections, Public Opinion and Parties*, 19(4), 473-500.

Becker, S., Fetzer, T., & Novy, D. (2017). Who Voted for Brexit? A Comprehensive District-Level Analysis. *IDEAS Working Paper Series from RePEc*.

Birch, S. (2016). Our new voters: Brexit, political mobilisation and the emerging electoral cleavage. *Juncture*, 23(2), 107-110.

Brody, R. A., & Page, B. I. (1972). Comment: The Assessment of Policy Voting.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6(2), 450-458.

- Buller, J. R. (2016). Brexit and the Democratic Deficit. In *Europe and the People: : Examining the EU's Democratic Deficit and Ways to Strengthen It*. Foreign Policy Centre.
- Butler, D., & Ranney. A., 1994. *Referendums around the World: The Growing Use of Direct Democracy*, Washington DC: The AEI Press.
- Campbell, A. (1954). *The Voter decides / Angus Campbell ... [et al.]*. New York: New York : Row, Peterson.
- Campbell, A., Converse, P., Miller, W., & Stokes, D. (1960). *The American Voters*. New York: John Willey and Sons.
- Carey, J. M. (2007). Competing Principals, Political Institutions, and Party Unity in Legislative Vot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1), 92-107.
- Carmines, E. G., & Stimson, J. A. (1980). The Two Faces of Issue Voting.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4(1), 78-91.
- Clarke, H. D. (2004). Political Choice in Britain [electronic resource]. In D. Sanders & M. C. Stewart (Eds.). Oxford: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Dalton, R. J., & Weldon, S. (2007). Partisanship and Party System Institutionalization. *Party Politics*, 13(2), 179-196.
- Dennison, J., & Carl, N. (2016). The ultimate causes of Brexit: history, culture, and geography. In: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Downs, A.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 Anthony Downs*. New York: New York : Harper.
- Erikson, R. S. (1989). Economic Conditions and The Presidential Vot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2), 567-573.
- Fiorina, M. P. (1978). Economic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A Micro-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2(2), 426-443.

- Fiorina, M. P. (1978). Economic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A Micro-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2(2), 426-443.
- Garzia, D. (2011). The personalization of politics in Western democracies: Causes and consequences on leader-follower relationships. *Leadership Quarterly*, 22(4), 697.
- Garzia, D., & De Angelis, A. (2016). Partisanship, leader evaluations and the vote: Disentangling the new iron triangle in electoral research. *Comparative European Politics*, 14(5), 604-625.
- Hetherington, M. (1999). The effect of political trust on the presidential vote, 1968-96.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3(2), 311.
- Hibbs, D. A. (1987). *The American political economy : macroeconomics and electoral politics / Douglas A. Hibbs, Jr.* Cambridge, Mass.: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 Hobolt, S. B. (2016). The Brexit vote: a divided nation, a divided continent.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23(9), 1259-1277.
- Ignazi, P. (1992). The silent counter-revolution.: Hypotheses on the emergence of extreme right-wing parties in Europ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22(1), 3-34.
- Inglehart, R. (1977). *The Silent revolution :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 Ronald Inglehart.* Princeton: 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 Inglehart, R.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 Ronald Inglehart.* Princeton, N.J.: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 & Norris, P. (2016). Trump, Brexit, and the Rise of Populism: Economic Have-Nots and Cultural Backlash. *IDEAS Working Paper Series from RePEc*.

- Key, V. O. (1966). *The responsible electorate : rationality in presidential voting, 1936-1960* / [by] V. O. Key, Jr., with the assistance of Milton C. Cummings, Jr. Foreword by Arthur Maass. Cambridge: Cambridge :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Lewis-Beck, M. S. (1988). *Economics and elections : the major western democracies* / Michael S. Lewis-Beck. Ann Arbor: Ann Arbor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ewis-Beck, M. S. (2008). *The American voter revisited* / Michael S. Lewis-Beck ... [et al.] with a foreword by Philip E. Converse. Ann Arbor: Ann Arbor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ipset, S. M. (1963). *Political man :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 by Seymour Martin Lipset. Garden City: Garden City : Doubleday.
- Marks, G. (1993). Partisanship and the vote in Australia: Changes over time 1967–1990. *Political Behavior*, 15(2), 137-166. doi:10.1007/BF00993851
- Nardis, Y. (2015). News, Trust in the European Parliament, and EP Election Votin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20(1), 45-66.
- Norris, P. (2005). *Radical right : voters and parties in the electoral market* / Pippa Norris. New York, NY: New York,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padopoulos, Y. (2001). How does direct democracy matter? The impact of referendum votes on politics and policy-making. *West European Politics*, 24(2), 35-58.
- Pisani-Ferry, J. (2016). Brexit vote will be test of rationality against populism. In (pp. 51). Melbourne.
- Smith, G. (2003). Referendum Democracy: Citizens, Elites, and Deliberation in Referendum Campaigns. In (Vol. 2, pp. 139).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Thatcher, M., & Sweet, A. S. (2002). Theory and Practice of Delegation to Non-Majoritarian Institutions. *West European Politics*, 25(1), 1-22.

- Tufte, E. R. (1978). *Political control of the economy* / Edward R. Tufte. Princeton, N.J.: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Vasilopoulou, S. (2016). UK Euroscepticism and the Brexit Referendum. *Political Quarterly*, 87(2), 219-227.
- Webb, P. 2004. La “presidenzializzazione” e l'erosione del governo di partito nei sistemi parlamentari: il caso del Regno Unito. *Rivista Italiana di Scienza Politica*, 23, 347-78.
- Zaller, J. (1992).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 John R. Zaller. Cambridge [England]
- Zoega, G. (2016). On the Causes of Brexit. In (Vol. 6056): CESifo Group Munich.

국내 문헌

- 강원택 외. (2004). 유럽정치. 서울: 백산서당.
- 김남국. (2004). 유럽통합과 민주주의의 결여. *국제정치논총*, 44(1), 281-302.
- 박영득, & 박상훈. (2016).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정요인 분석: 기술숙련도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경쟁 (Determinants of Voting Choice in Brexit Referendum: Skill Level and Job Competition in the Labor Market). *세계지역연구논총*, 34(3), 7.
- 방청록. (2017). 브렉시트 결정의 유럽의 통합과 분열에 대한 영향 연구 (Brexit and Its Impacts on European (Dis)integration). *유럽연구*, 35(1), 59.
- 설한. (2010). 초국적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고찰 (A Critical Review on Democratic Legitimacy of Transnational Institutions). *국가전략*, 16(2), 179-207.

기타 자료(신문 기사 등)

“브렉시트 쇼크...‘기존 질서에 분노’ 거세진 포퓰리즘”, 경향신문, 2016.06.26

“[영국 오늘 브렉시트 투표]제 궤에 넘어간 캐머런... 총리관저 내줄수도”, 경향신문, 2016.06.22

“브렉시트 찬반전쟁 가열...노동당수 코빈 저지전 전면예”, MBN, 2016.06.14

“영국 보수·노동 양당제 역사 속으로?”, 주간동아, 2015.05.04

“영국 양당제 전통 종말?...총선서 연정체제 연장 가능성”, 연합뉴스, 2015.04.12

“Brexit Britain: What has actually happened so far?”, BBC, 2016. 12. 22

“Don’t be fooled, the Conservatives remain utterly divided on Brexit”, The Conversation, 2016.10.05

“EU referendum: youth turnout almost twice as high as first thought”, Guardian, 2016.07.10

“What Brexit Reveals About Rising Populism”, James McBride, 2016.06.29

“Why Brexit will not happen”, EurActiv.com, 2016.06.27

“Brexit: How much of a generation gap is there?”, BBC, 2016.06.24

“Huge turnout of 72.2 per cent for EU referendum with 33.6 million voting”, The telegraph, 2016.06.24

“UK’s EU Referendum Brexit Poll Tracker”, Financial Times, 2016.06.23

“Britain Votes to Leave E.U.; Cameron Plans to Step Down”, New York Times, 2016. 06.23

“EU referendum: Jeremy Corbyn is now genuinely against Brexit - but is it too little too late?”, Independent, 2016.06.22

“Britain’s two-party political system isn’t working”, Guardian, 2016.04.20

“The campaign to stay in the EU is 'Project Fear', says Boris Johnson”, Independent, 2016.02.29

“How Britain voted in 2015: The 2015 election – who voted for whom?”, Ipsos MORI, 2015.08.26

“Cas Mudde, ‘The Trump phenomenon and the European populist radical right.’”, Monkey Cage/Washington Post, 2015.08.26

“David Cameron promises in/out referendum on EU”, BBC, 2013.01.23

“September 21 1988: Thatcher sets face against united Europe”, The Guardian, 1988.09.21

Abstract

The Voting Pattern in a National Referendum and the Post-Referendum Party Evaluation: The Case of the 2016 Brexit Referendum

**Chung, Chee Hae
Political Science Maj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variables affecting the British electorate's voting behavior in the 2016 Brexit referendum and the assessment of the favored political party in the aftermath. The two major research questions are: first, how did the assessment of the favored political party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in the United Kingdom(UK) and in the European Union(EU) influence the voters' choice in the Brexit referendum; secondly, how did the process and outcome of the plebiscite affect the citizens' assessment of their preferred parties.

Statistical analysis reveals that the variables with the greatest influence upon the pro-Brexit voters appear to be the personal assessment of the democratic system of the UK and EU political

systems regardless of party preference. The more one viewed democracy in the UK positively and democracy in the EU negatively, the more likely they were to support for Brexit. This shows that those who were dissatisfied with the democratic deficit of the supranational body but not of their national government, preferred to exit the European Union. Variables such as party identification and favorability of the leader of the favored part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for the Conservative Party supporters—and a negative correlation at that. In other words, British voters could not utilize their preferred political parties or their leaders for information shortcut in the referendum.

Furthermore, the variables affecting the post-referendum assessment of the preferred political parties (party identification, favorability of the party leader, and voting intention) were the variables concerning the assessment of the national party system including the party unity and efficacy regardless of party preference and Brexit divide. The voters tended to have more positive views of their favored party after the vote, when they considered it maintained efficacy within the UK political system and displayed unity. This means that the voters expected their parties of preference to play a relevant role in the national debate and to present a united voice on the Brexit issue even if that voice

happened to differ from their own. Conversely,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voters' assessment of their favored political parties may have been adversely affected by the their failure to prove their efficacy or unity.

Keywords: Brexit, European Union, Referendum, Voting Behavior, Democratic System Evaluation, Supporting Party Evaluation, British Political Party System

Student Number : 2014-22278